

제29호 한솔건설(주) 품질안전팀 이정규 팀장



근로자들을 감동시킨 함께하는 안전

**넓**떠란 도로, 높이 솟아오른 건물, 수많은 자동차. 이것은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이다. 서울역삼동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딱딱하고 차가운 도시속에서도 따뜻하고 사람냄새나는 정으로 우리네 안전을 실천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 안전과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힘쓰는 행동과 안전인을 찾아 한솔건설(주) 품질안전팀에 '똑똑' 문을 두드렸다.

1993년 삼성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한솔건설(주)는 2003년 전 사업장 무재해라는 달콤한 열매를 수확한 이후, 「안전은 생명, 환경은 사랑, 품질은 명예」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04년에도 무재해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무재해 달성이야말로 근로자의 노력이며, 한솔건설(주) 전 직원이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라고 얘기하는 이정규 팀장은 22년의 안전경력을 둔 안전의 아버지요, 큰 형님이다.

■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지식이 함께 커가야

1982년부터 안전업무를 담당해왔다는 이정규 팀장은 안전의 큰 형님답게 근로자들을 감동시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안전을 추구한다. 한솔건설 전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라는 동료의식과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감성안전이 그렇고, 5C활동과 5S활동, TPM 활동을 접목시킨 MTM(Men To Men) Safety 활동이 그렇다. 자칫 삭막할 수 있는 현장에서 상호간의 이름을 부르고 존댓말을 쓰며, 작업별로 관리자를 배치하여 근로자들과 1:1로 통하도록 함으로써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한솔제지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한솔건설로 온 후 이정규 팀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관리자들의 안전지식 확보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니라 '이렇다' 라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수 안전과 관련하여 300문제를 만들어 과장급 이상에게 나눠주고 50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았다. 80점 미만은 인사고과 D에 반영한다는 조건이었다. 결과, 평균 95점이라는 성과로 안전에 대한 관심 유발과 지식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안전지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커감으로써 무재해 한솔건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솔건설(주)는 1999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산재예방유공단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정규 팀장은 이러한 상이나 무재해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나 타부서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의 뜻에 잘 협조하여 스스로 참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항상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발로 뛰는 안전, 근로자들과 함께 하는 안전을 위해 현장으로 향한다.



<성호연 기자>